

2 칼빈의 예정론에 나타난 선교사상¹⁾

김종희 교수 /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1. 서 론

칼빈은 예정론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쳤으며, 성경적 교리의 유쾌한 열매들이 음미되도록 하기 위해 사색과 이론화를 피하려고 하였다.²⁾ 성경 범위 내에서 전개한 그의 예정에 대한 정의는 153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는 여기에서 로마서를 반영하는 구원론적 문맥에서 이중예정으로 정의하였다.³⁾

-
- 1) 본 고는 필자의 다음 논문들을 많이 참고하였다. “칼빈의 삼위일체적 예정론” 신학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2001. “칼빈의 예정론,” 「기독신학자널」, 2003. 4. “칼빈의 예정론의 근거와 성격,” 「현대와 신학」 2001. 6. “타락 전-타락 후 예정론 논쟁과 칼빈의 예정론,” 「현대와 신학」 2002. 6. “칼빈의 예정론에 나타난 실천적 삼단논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01. 10. “칼빈의 예정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 「칼빈연구」, 2005. 1. “칼빈의 예정론의 교리사적 위치,” 「칼빈연구」, 2006. 1.
 - 2) F. H. Kl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Grand Rapids, 1977), 25.

성경적인 교리라 해도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어떤 사람은 유기로 예정되었다는 칼빈의 예정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예정론을 강력하게 반대한 자가 칼빈의 논적 피기우스⁴⁾였다. 그는 복음의 보편성과 특별선택이 조화되지

3) *Inst.*, III, 21, 5(OS, 4, 374) : "Praedestinationem vocamus aeternum Dei decretum, quo apud se constitutum habuit quid de unoquoque homine fieri vellet. Non enim pari conditione creantur omnes : sed aliis vita aeterna, aliis damnatio aeterna praordinatur. Itaque prout in alterutrum finem quisque conditus est, ita vel ad vitam vel ad mortem praedestinatum dicimus."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이 목적들 중의 어느 한 쪽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그가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

4) Albertus Pighiusms는 1490년경 카펜에서 태어났다. 1507년 그는 철학을 공부하려 Louvain대학교에 갔고, 1509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에 그의 선생들 중의 하나로서 Adrian Florent(후에 교황 Adrian VI)가 있는 신학과정에 들어가 학사학위를 받았다. 1517년 Louvain을 떠나 파리로 가서 그의 전 생애를 신학이 아닌 과학에 전념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시기 동안 그의 첫 번째 저서들이 파리에서 출판되었고, 그것들이 모두 수학적-천문학적인 성격의 것들이었다는 사실로 확증된다. 당시에는 신학, 천문학, 수학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유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드문 상황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1522년 그 교황의 명령 때문에 로마에 갔을 때 그의 생애에서 커다란 변화가 왔다. 그는 오랫동안 경시해 왔던 신학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특히 교회-정치적 문제에 몰두하여, 10년 후 자기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운동에 대항하여 가톨릭교회의 옹호자가 될 결정적인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당시의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는 증거이다. 그 당시 그는 에라스무스의 친구(후에는 그의 적)였고, 르네상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승배자였으며, 열렬한 독일 민족주의자였고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그는 아마도 1532년보다 늦지 않게 네덜란드에 돌아왔을 것이다. Utrecht에 머무는 수년 동안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집중적인 연구와 다작의 저서(*Apologia indicti a Paulo III(1537-38)*, *Hierarchiae ecclesiasticae assertio* (Cologne, 1538), *De libero hominis arbitrio*(Cologne, August 1542), 그리고 유작으로 *Apologia Alberti Pighii Campensis adversus Martini Buceri Calumnias*(Mainz, March 1543) 등이 있다.)를 남겼다. 그는 1542년 12월 29일 사망했고, 우트레흐트(Utrecht)에 있는 성 요한 교회에 묻혔다. L. F. Schulze,

않는다는 이유로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했다.⁵⁾ 게오르기우스는 예정론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⁶⁾ 이들의 주장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칼빈의 예정론이 선교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칼빈의 예정론은 선교에 장애가 되는가? 또한 선교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교리인가? 그래서 선교할 때 예정론은 침묵해야만 하는 교리인가? 이러한 의문점이 본 고가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에 선교⁷⁾사상이 있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칼빈의 예정론에 선교사상이 있었는지와 칼빈이 당시 선교를 했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종교개혁기에 칼빈이 해야 했던 주된 목적은 로마 가톨릭의 오류에 대해 성경에 근거한 참된 교리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었으며,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선교처럼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기독교 세계 안에서 개혁 신앙을 전파하는 것에 일차적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⁸⁾

2. 예정시행 과정에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과 유기로 결정되었다는 예정론⁹⁾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할 때 무

Calvin's Reply to Pighius(Potchefastroom : Pro Rege-Press, 1971). 11-18.

5)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trans. J. K. S. Reid(London : James Clarke & Co. Ltd., 1961), 102(CO 8, 298) : "Cum speciali electione congruere non videtur, quod Christus totius mundi redemptor omnibus promiscue evangelium praedicari iussit. Atqui, [pag. 86] evangelium legatio est pacis, qua reconciliatur mundus Deo,"

6)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54(CO 8, 340).

7) 본 고에서 선교는 주로 '복음전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8) 박경수, "칼뱅의 종교개혁과 선교," 「선교와 신학」 제21집, 2008 : 100-123 참조.

9) 필자의 "칼빈의 예정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 「칼빈연구」, 2005, 1. 참조.

의미한 교리로 취급되어야 마땅한가? 나아가 선교를 방해하는 교리로 무시되고 폐기되어야 하는가? 예정의 특수성은 복음과 선교의 보편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선입견에서 나오는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품는 의문점일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이 예정론을 가르치던 당시 논적 피기우스도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보편성과 특별선택이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정론을 반대했다.¹⁰⁾ 그러나 칼빈에게 이 둘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되었으며,¹¹⁾ 보편적인 복음의 전파로 하나님의 은총도 보편적으로 드러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¹²⁾ 이어서 피기우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딤전 2:4), 하나님의 죄인의 죽음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 에스겔서를 언급했다(겔 18:23; 33:1).¹³⁾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개별적인 사람들보다는 사람들의 계층과 관련된다. 또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민족들의 개별자들이 아니라 개별자들의 민족들이다.¹⁴⁾ 그 문맥에서 확실한 것은 복음의 외적인 선포에서 나

10) 피기우스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539년 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칼빈의 교리에 반응하고 공격하게 되었다. 1542년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하여」(De libero hominis arbitrio)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저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은 1~6권으로 구성되는데 의지의 자유를 다루고, 한편 둘째 부분은 7~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칼빈의 예정론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에 관하여 설명했다. L. F. Schulze, *Calvin's Reply to Pighius*, 15–17.

11)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02–103(CO 8, 298) : "Christum sic toti mundo ordinatum esse in salutem, ut eos servet qui a patre illi dati sunt : eorum sit vita, quorum est caput : eos in bonorum suorum societatem recipiat, quos sibi Deus gratuito beneplacito haeredes adoptavit."

12) Ibid., 103(CO 8, 298–299).

13) Ibid., 105(CO 8, 299).

14) Ibid., 109(CO 8, 303–304) : "mature occurrit Paulus, Deum omnes salvos velle fieri dicens. [pag. 97] Quis non videt ordinum hic geri

타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포로 자비롭게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이다.¹⁵⁾ 결국 피기우스와 칼빈의 입장 차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해석 차이인 것을 알 수 있다. 피기우스에게 '모든 사람'은 모든 개별자를 의미했고, 칼빈에게는 모든 계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인격'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었다.¹⁶⁾

mentionem potius quam singulorum hominum? Nec vero ratione caret trita illa distinctio : Non singulos generum, sed genera singulorum notari. Quod tamen non alia sit Dei voluntas intelligenda, quam quae patet ex externa evangelii praedicatione, ex contextu evincitur : ut Deum significet Paulus omnium velle salutem, quos benigne ad Christum invitat."

15) Ibid., 109(CO 8, 303–304) : "mature occurrit Paulus, Deum omnes salvos velle fieri dicens. [pag. 97] Quis non videt ordinum hic geri mentionem potius quam singulorum hominum? Nec vero ratione caret trita illa distinctio : Non singulos generum, sed genera singulorum notari. Quod tamen non alia sit Dei voluntas intelligenda, quam quae patet ex externa evangelii praedicatione, ex contextu evincitur : ut Deum significet Paulus omnium velle salutem, quos benigne ad Christum invitat."

16) 칼빈과 피기우스는 또한 '인격'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났다. 인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람을 의미했다. 그래서 피기우스는 심판자는 공평해야 한다는 성경의 경고와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는 분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은총의 보편적 시여를 증명하고자 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중립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공정한 공공기금의 분배자같이 관대하고 인정 많은 분이라고 추론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은총 위에 기초되는 것이라 인간의 공로에 기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칼빈은 인격의 성경적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대답했다. 성경에서 인격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모든 외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한 번 더 칼빈은 인간의 책임과 강력하고 자유롭고 유효한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생각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모두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똑같은 집단에서 그의 선하신 자비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칼빈은 언급했다. L. F. Schulze, *Calvin's Reply to Pighius*, 107 ; Ibid., 110–112, (CO 8, 302–306).

예정의 시행은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복음전파와 밀접하다. 칼빈의 예정론에 나오는 부르심은 일반적 부르심과 개별적 부르심으로 구별된다. 말씀의 선포를 통한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며, 성령의 조명을 통한 부르심은 개별적인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일반적 부르심으로 외면적인 복음을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자신에게로 부르시는데, 복음을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서(고후 2:16 참조), 또 엄격한 정죄의 기회로서 제시하신다.¹⁷⁾ 그런데 개별적 부르심은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신자들의 마음 속을 비추시어 선포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신다.¹⁸⁾ 칼빈은 예언서를 인용하여 개별적 부르심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사 65:1).¹⁹⁾ 이러한 개별적 부르심에는 민족적 공평성, 하나님의 은총과 무상의 선하심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공통이지만, 개별적인 부르심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중생의 영이 동반된다. 중생의 영은 장차 있을 기업의 보증이며 인장인데, 주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마음에 찍혀 있다.²⁰⁾

복음의 보편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외적인 부르심은 선택된 자들이나

17) *Inst.*, III, 24, 8(OS 4, 419) : “duplicem esse vocationis speciem. Est enim universalis vocatio, qua per externam verbi praedicationem omnes pariter ad se invitat Deus : etiam quibus eam in mortis odorem, et gravioris condemnationis materiam proponit.”

18) *Ibid.* : “Est altera specialis, qua utplurimum solos fideles dignatur : dum interiori sui Spiritus illuminatione efficit, ut verbum praedicatum eorum cordibus insideat.”

19) *Inst.*, III, 24, 2(OS 4, 412) : “palam apparui iis qui me non interrogabant, Populo qui non invocavit nomen meum, dixi, Ecce adsum”[Iesa. 65. a. 1.]

20) *Inst.*, III, 24, 8(OS 4, 420) : “Illa enim impiorum etiam communis est, haec secum affert Spiritum regenerationis, qui est arrhabo et sigillum futurae haereditatis, quo in diem Domini obsignantur corda nostra” [Ephes. 1. c. 13, 14].

유기된 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이 점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외면적인 부르심은 그것을 듣고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계할 수 없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신에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총의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써 영원한 계획에 의해 그들에게 예정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유기된 자들에 대해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계획을 시행하신다. 유기된 자들이 예정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으시며, 어떤 때는 말씀의 선포에 의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키신다.²¹⁾ 말씀의 선포를 통한 외적 부르심은 그 자체가 유기된 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²²⁾

21) *Inst.*, III, 24, 12(OS 4, 423) : “Quemadmodum suae erga electos vocationis efficacia, salutem, ad quam eos aeterno consilio destinarat, perficit Deus : ita sua habet adversus reprobos iudicia, quibus consilium de illis suum exequatur. …… ut in finem suum perveniant, nunc audiendi verbi sui facultate privat : ”

22) *Inst.*, III, 24, 13(OS 4, 424–425) : “Istud quidem in quaestionem trahi non potest, multis verbum suum Dominum mittere, quorum caecitatem magis velit aggravari. Quorsum enim tot mandata deferri iubet ad Pharaonem? and quia saepius repetitis legationibus mitigatumiri sperabat? Imo antequam inciperet, exitum et noverat et praedixerat. Ito(dicebat Mosi) et expone illi voluntatem meam ; ego autem indurabo cor eius ne obtemperet[Exod. 4. e. 21]. Sic quum Ezechielem suscitat, praemonet se mittere ad populum rebellem et contumacem : ne terreatur si surdis se canere videat[Ezech. 2. b. 3, et 12. a. 2]. Sic Ieremiae praedicit, futuram eius doctrinam in ignem, ut populum instar stipulae perdat et dissipet[Iere. 1. b. 10]. Sed magis etiamnum premit Iesaiae prophetia ; sic enim a Domino dimittitur, Vade, et dic filiis Israel, Audiendo audite, et ne intelligatis. Videndo videte, et nesciatis. Obstina cor populi huius, et aures eius agrava, et oculos eius obline : ut ne forte videat oculis suis, et audiat auribus suis, et corde intelligat, quo conversus sanetur[Iesa. 6. c. 9]. Ecce, vocem ad eos dirigit, sed ut magis obsurdescant : lucem accendit, sed ut

외적인 부르심의 보편성과 그 효과의 특수성에 대한 칼빈의 구별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생긴 것이다. 그것은 칼빈의 예정론이 사색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 이기도 하다.²³⁾ 이런 관점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고자 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수수께끼로 싸서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더 심한 우둔에 빠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²⁴⁾ “최고 심판자는 정죄하시고 그의 빛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자들을 어두운 상태에 버려두실 때, 그의 예정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러한 효과에 관하여는 성경의 많은 증거들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다. 성경에도 증거가 많다. 똑같은 설교가 백 명에게 선포될 때, 이십 명은 곧 순종하는 신앙으로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비웃거나 싫어한다.”²⁵⁾ 이렇게 칼빈은 예정의 특수성과 복음의 보편성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조화시키면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간과하지 않는다. 예정의 시행에서 먼저 믿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과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reddantur caeciores : doctrinam profert, sed qua magis obstupescant : remedium adhibet, sed ne sanentur. Atque hanc prophetiam adducens Iohannes, Iudeos Christi doctrinae non potuisse credere asserit[Ioan. 12. f. 39] quia in eos incumberet haec Dei maledictio.”

23) 필자의 “칼빈의 예정론의 근거와 성격,” 「현대와 신학」 2001. 6. 참조.

24) *Inst.*, III, 24, 13(OS 4, 425).

25) *Inst.*, III, 24, 12(OS 4, 424) : “Praedestinationi igitur sua viam facit summus ille arbiter, ubi quos semel reprobavit, lucis suaem communicatione orbatis deserit in caecitate. Alterius membra cum extant quotidiana documenta, tum multa in Scripturis continentur. Apud centum eadem fere habetur concio, viginti prompta fidei obedientia suscipiunt : alii vel nullius pensi habent, vel rident, vel explodunt, vel abominantur. Cf. I. iv. 1; v. 8; III. xx. 14.

3. 복음전파로 나타나는 예정의 표징

선택과 유기가 이미 결정되었다면, 그런 상태에서 유기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고, 선교의 대상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칼빈은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을까? 예정의 표징에 따라 선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전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예정의 표징이라는 것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예정론에서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상반된 작정인 것처럼, 그 표징들도 서로 정반대로 나타난다. 예정의 표징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는데 선택된 자들에게는 성령의 동반으로, 유기된 자들에게는 비동반으로 예정이 시행된다. 유기의 표징은 선택의 상반되고 부정적인 표징으로 보여진다. 칼빈은 선택의 표징이 내적 부르심과 칭의라는 것을 강조했다. 유효적인 내적 부르심이 선택의 표징이라면, 내적 부르심의 금지는 유기의 표징이다. 성령의 조명에 의한 신앙이 선택의 결과이며 표징인 반면, 성령의 비동반으로 인한 불신앙은 유기의 결과이며, 표징이다.

칼빈은 로마서 8:30에서 선택의 표징을 발견했다. 부르심과 칭의가 그것이다. 칼빈은 예정론에서 칭의를 부르심과 밀접히 관련시켰다. 그리고 선택의 확실성의 인식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 따라서 구원의 확실성 혹은 선택의 확실성은 선택의 표징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 두 측면은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선택의 표징인 부르심을 통하여 확신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계속되는 은총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은총으로

26) 칼빈의 예정론에는 실천적 삼단논법이 있다. 실천적 삼단논법은 “개혁자들이 개인 안에서, 그리고 개인을 위하여 선택의 확실성(certitudo electionis)을

확인된다. 특히 선택과 신앙의 인과관계가 명료화되고 강조된다. 예정과 신앙은 조화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계속하여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신앙 안에서 보존하여 끊임없는 유익을 얻게 해야 한다. 칼빈이 선택과 신앙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볼섹과의 논쟁²⁷⁾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예정과 설교, 견책, 전도 등과의 조화로운 관계, 따라서 인간의 책임이 하나님의 예정과 병행된다는 것을 칼빈은 부각시키고 있다.

선택의 표징인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도 그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준다.”²⁸⁾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안에서 두 가지 방

획중하기 위하여 사용한 논리적 체계”로서 다음과 같다. “참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택받았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받았다”(Quisquis vere credit et resipiscit electus sit : Atqui ego credo, etc. ; Ergo electus sum), Francis Turretin, *Institutio theologiae*, IV. xiii . 4, quoted in R.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s, 1985), 293. 참고 “칼빈의 예정론에 나타난 실천적 삼단논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01. 10. 참조.

- 27) 전 까르멜회의 수사였고 당시 의사였던 제롬 볼섹은 칼빈주의 교리를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중예정에 대해서는 예외였다. 1551년 10월 회중총회에서 그는 칼빈이 예정론으로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폭군이나 주피터로 만드는 것이고, 성 어거스틴이 그러한 견해를 가졌었다고 믿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그도 그러한 견해를 갖지 않았었고 고대의 어떤 박사들도 그 견해를 갖지 않았었다.”고 하면서 공격하였다. Nic. Colladon, *Vie de Calvin*, CO 21, 73, quoted in Wendel, 90. 볼섹은 신앙과 선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신앙은 선택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선택은 신앙에 근거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조명되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장님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조명하지 않는 자들은 간과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등하게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며, 구별되는 것은 오직 완고함으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둘 같은 마음들 가운데서 육신 같은 마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실 때, 비록 성경이 그것은 교회 단독의 특권이라고 분명히 선언할지라도, 이것은 전 인류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51(CO 8, 255).
- 28) *Inst.*, III, 24, 2(OS 4, 412).

법으로 역사하신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함양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혁신을 원하며, 구하며, 달성하도록 분발시키신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륜의 방법에 의한 자기의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신다.”²⁹⁾

선택과 부르심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며, 그 주체는 하나님이므로 부르심은 값없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무상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을 때에, 육은 적어도 그에게 응답했다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육은 들는 귀와 보는 눈이 없다고 선언하신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각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택 때문이다.”³⁰⁾ 이 점에 대한 실례는 “영생으로 정해진 자들은 믿었다.”(행 13 : 48)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서는 끝까지 선택만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부르심은 값없는 것이다.³¹⁾

유기에 관계된 구절들은 155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눈에 띠게 훨씬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실제로 새로운 교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³²⁾ 특히 유기에 관한 내용이 확장된 것은 논쟁의 결과이다. 예정 작정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유기에서 작정과 수단의 관계는 선택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대이다. 선택에서 하나님은 승인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조명하시지만 유기에서는 거

29) *Inst.*, II, 5, 5(OS 3, 303).

30) *Inst.*, III, 24, 2(OS 4, 412-413) : “Ac ne glorietur caro quod vocanti et ultrò se offerenti saltem responderit, nullas ad audiendum esse aures, nullos ad videndum oculos affirmat, nisi quos ipse fecerit. Facere autem non secundum cuiusque gratitudinem, sed pro sua electione.”

31) *Ibid.*, (OS 4, 413).

32) F.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Philip Mairet(London : Collins, 1973), 269.

절하시고, 강퍅하게 하시고, 눈멀게 하신다.³³⁾ 말하자면,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유기된 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선택 받은 자들의 마음을 그의 성령으로 조명하시지만 유기된 자들은 버리시고 은총에서 제외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둡게 하여 죄 속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시고, 사탄에게 넘겨 주신다.³⁴⁾ 또한 칼빈은 다른 곳에서 유기의 표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자들을 부르심과 칭의로 인을 치는 것처럼 유기된 자들을 그의 이름을 아는 것과 성령의 성화로부터 차단함으로써, 말하자면 그러한 표징들로 어떤 종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계시하신다.”³⁵⁾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악인들에게는 그의 영의 효과적인 역사를 허용하시지 않는다.³⁶⁾

이처럼 선택의 표징에는 성령이 동반하며, 유기의 표징에는 성령이 동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과 유기의 이중예정이 달성된다. 그러나 칼빈은 유기의 표징을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도록 경고했다. 유기의 표징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예정된 자들의 수에 누가 속하거나 누가 포함되지 않는지를 모르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해야 한다.”³⁷⁾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평화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³⁸⁾ 하나님의 유기 작정이 분명히 개인들과 관련될지라도 칼빈은 그 유기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33) Cf. Comm. II Thessalonians 2 : 11(OC 52, 204), quoted in Klooster, 81.

34) Ibid.

35) Inst., III, 21, 7(OS 4, 379).

36) Inst., III, 24, 2(OS 4, 412) : “Atque etiam Deus, illustrandae gloriae suae causa, Spiritus sui efficaciam ab illis subducit.”

37) Augustine, *De correptione et gratia* 15, 46 col. 944 sq. quoted in Inst., III, 23, 14(OS 4, 409) : “nescimus quis ad praedestinorum numerum pertineat, vel non pertineat, sic nos affici decere ut omnes velimus salvos fieri.”

38) Augustine, *De correptione et gratia* 16, 49 col. 946, quoted in Inst., III, 23, 14(OS 4, 409-410).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누가 분명히 유기된 자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였는지 결정하는 일이나, 또는 선택된 자를 유기된 자들과 구분해 내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만의 특권인데,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이다(딤후 2 : 19).”³⁹⁾ “그리고 인간의 경솔함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사건들에 의해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지를 경고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벼려지고 희망 없이 포기된 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그 좁은 길로 다시 부름을 받고, 남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던 자들이 흔히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눈만이 누가 마지막까지 견인할 자인지를 보실 수 있는데(마 24 : 13), 그 것은 그분만이 구원의 머리이기 때문이다(히 2 : 10).”⁴⁰⁾

이러한 자세는 복음 전파의 대상과 관련된다. 우리는 선택의 표징을 나타내는 자들뿐만 아니라 유기의 표징을 나타내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과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 모두가 구원 받기를 갈망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유기하기로 결정하신 그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⁴¹⁾

39) Ibid., 60(CO 1, 75) : “Caeterum, de aliis certo censere an sint ex ecclesia, nec ne, ac electos a reprobis discernere, non nostrum est. Haec enim singularis est Dei prerogativa, nosse qui sui sint, ut testatur Paulus(2 Tim. 2).”

40) Ibid. : “Et ne hominum temeritas eo se proriperet, ipso quotidie eventu admonemur, quam longe sensum nostrum superent iudicia Domini. Nam et qui perditissimi videbantur et plane deplorati fuerant, eius bonitate in viam revocantur, et qui prae aliis stare videbantur, saepe corrunt. Solius Dei oculi vident, qui in finem usque sint perseveraturi(Matth. 24), quod demum est salutis caput(Matth. 16).”

복음 전파는 실제로 “선택의 샘에서 흘러나오며”⁴²⁾ 그것의 본래적 목적은 선택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 의지를 시행하시기 때문이다.⁴³⁾

칼빈의 대답 일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것은 경건한 자들이 신앙만 있으면 죄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들의 양심이 평안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악인들은 그것이 주어졌을 때 자신들의 배은망덕으로 거부하는 한,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피할 피신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⁴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요 6:65)는 말씀은 거짓도 아니며, 그의 명령에 상반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자적으로 전도하여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견인하고 끊임없는 유익을 얻게 해야 한다.⁴⁵⁾

이러한 예정의 표징은 선교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복음전파 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유기된 자의 반응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선교를 중단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칼빈의 예정론은 선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교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선택과 유기의 표징이 타인을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오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선택의 표징으로 자신의 선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있지만,⁴⁶⁾ 타인에 대해서는 선택된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 구별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반기를 바라며 복음을

41) *Inst.*, III, 24, 13–14(OS 4, 424ff.) ; Klooster, 59–60.

42) *Inst.*, III, 24, 1.

43) Klooster, 85.

44) *Inst.*, III, 24, 17(OS 4, 430).

45) *Inst.*, III, 23, 13(OS 4, 407).

46) 필자의 “칼빈의 예정론에 나타난 실천적 삼단논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01. 10. 참조.

전파하여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칼빈은 강조했다. 따라서 칼빈의 예정론은 선교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없다.

4. 전파되어야 할 복음으로서의 예정론

예정의 시행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지고, 복음전파로 예정의 표징이 나타난다는 점이 강조된 칼빈의 예정론은 선교를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⁴⁷⁾ 그런데 그 예정론이 선교의 내용으로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예정론이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진다면 칼빈은 어떻게 대답할까?

당시 멜랑히톤은 예정론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성경이 가르치는 한 예정론은 침묵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칼빈은 “예정에 관한 모든 언급은 회피해야 한다고 거의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암초를 피하듯이 그것에 관한 어떤 질문도 피하라고 가르친다.”⁴⁸⁾라고 하면서 “그들은 너무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쉽게 억제되지 않는 인간의 지력을 거의 진보시키지 못한다.”고 그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지력에 관한 확실한 법칙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며, 그 안에는 필수적이고 유용한 지식은 아무 것도 빠져 있지 않은 것처럼, 편리한 지식이 아니면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입을 다무실 때는 즉시 모든 탐구의 길을 닫는다는 제한조건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하나

47) 박경수, “칼뱅의 종교개혁과 선교,” 105 참조.

48) Cf. Melanchthon, *Loci theologici*(1535)(CR Melanchthon XXI. 452) ; Cadier, *Inst.*, III, 395, n. 6.

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의 입과 귀를 열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에게 침착한 태도의 최선의 한계는 배울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치기를 그칠 때에는 알려고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⁴⁹⁾

성경 범위 내에서 전개된 예정론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칼빈의 입장은 이렇게 단호했다. 그러나 피기우스의 눈에 예정론은 설교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예정론이 설교에 부적당하고 그것을 무용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⁵⁰⁾ 그리고 설교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선택에 달렸다면 가르침은 헛되고, 권고는 공허하고 쓸모없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믿으라고 배운다면 나태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⁵¹⁾ 이에 대해 칼빈은 어거스틴을 인용하여 예정론이 성경적인 교리라는 것을 증명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 안에서 의지하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빌 2:13). 그러므로 그가 너희를 권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지하고 행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해서(빌 1:6) 그가 사람들을 설득하여 시작하게 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중단했는가?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즉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의견은 그르지도 않고, 그분의 정의가 헛되지도 않다. 또한 그 정의가 참되기

49) *Inst.*, III, 21, 3(OS 4, 371-372).

50)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35(CO 8, 325) : “Praedestinationis doctrinam aiunt praedicationi adversam esse, ne quid pro sit.”

51) Ibid. : “Irritam fore doctrinam, vanas et nihil exhortationes, si ab electione Dei pendeat obsequendi vis et facultas, Item aliud non absimile : Fieri non posse quin se ignaviae dedant homines, quum in aeternum Dei consilium recumbere docentur.”

52) Ibid.

때문에 그 교훈도 헛되지 않다.”⁵³⁾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에서 예정론이 설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다.⁵⁴⁾ 그 이유는 칼빈에게 예정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어거스틴과 함께 바울을 인용하여 예정론은 설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교를 듣든지 듣지 않든지, 듣는 자들이 들은 것을 행하고 듣지 않은 자들은 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내하고 유효한 신앙에 관한 설교가 예정에 관한 설교에 의해 방해 받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듣고 들은 자들이 복종할 수 있다. 설교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는가? 또한 예정에 관한 설교는 끝까지 인내하는 유효한 신앙에 관한 설교에 의해 방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하고 유순하게 사는 자들은 그 복종이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자들이 올바르게 권고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 선물을 받는 자들이 권고와 설교를 유순하게 듣는다. …… 그러므로 우리는 권고하고 설교해야 한다.”⁵⁵⁾

53) Ibid. : “Deus est qui operatur in vobis et velle et perficere(Phil. 2, 13) : ideo non et ipse ut velimus quae Deo placent, et ut operemur, hortatus est? An quia dixerat : Qui coepit in vobis opus bonum, perficiet(Phil. 1, 6) : ideo ut inciperent homines et perseverarent usque in finem, non suasit? Nempe, ipse Dominus praecepit hominibus ut in se crederent. Neque tamen falsa eius sententia est, nec vana definitio, ubi ait : Nemo venit ad me, hoc est, nemo credit in me, nisi cui datum fuerit a patre meo(Io. 6, 44). Neque rursus, quia vera est haec definitio, vana est illa praeceptio. Cur ergo praedicationi, exhortationi, correctioni, quae omnia tam frequenter usurpat scriptura, dicemus inutilem esse praedestinationis doctrinam, quam commendat eadem scriptura?”

54) L. F. Schulze, *Calvin's Reply to Pighius*, 117.

55)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36-137(CO

설교가 선택된 자나 유기된 자에게 상반된 효과를 일으키지만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것이므로 예정 교리도 같은 관점에서 선포되어야 함을 칼빈은 또한 역설했다. 그리스도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하라”(마 13 : 9)고 하신 말씀에는 이유가 있음을 칼빈은 알았기 때문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고하며 전도할 때에,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지만, “들어도 그들은 듣지 못한다”(사 6 : 9)는 말씀은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성취되기 때문이다.⁵⁶⁾ 계속해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교회의 교사들이 두 가지를 다 했다면—즉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루며, 동시에 신자들을 경건한 생활 훈련 하에 불 들어 놓았다면—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진리의 구속력을 느끼면서도 ‘예정에 대한 말은 옳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에게 선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옳게 생각하는가? 확실히 이 말씀은 선포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해야 한다(막 4 : 9 ; 마 11 : 15 ; 뉴 8 : 8). 그러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에게서 받지 않으면 누가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할 것인가? 받지 않는 사람은 거부 할지 모르나 받는 사람은 받아서 마시고, 마시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8, 325–327) : “Paulo post : Audunt haec, et faciunt quibus datum est, Non autem faciunt, sive audiant, sive non audiant, quibus non est datum. Nec praedestinationis igitur praedicatione impedienda est praedicatio fidei perseverantis et proficientis : ut quod oportet audiant, et quibus datum est obedient, Quomodo enim audient absque praedicante? Nec rursus praedicatione fidei proficientis, et in finem usque perseverantis, impedienda est praedicatione praedestinationis : ut qui fidelior et obedienter vivit, non de ipsa obedientia tanquam de suo, sed in Domino glorietur. Item, sicut is qui donum accepit recte exhortatur et praedicat, ita exhortantem et praedicantem obedientem audit, qui accepit hoc donum. …… Exhortamur ergo atque praedicamus …… Imo, praedicandum est prorsus : ut qui habet aures audiendi, audiat.”

56) *Inst.*, III, 23, 13(OS 4, 407).

님을 바르게 경배하도록 경건을 선포해야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예정을 선포해야 한다.”⁵⁷⁾

예정론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따라서 칼빈의 예정론은 복음으로서, 선교의 내용으로서 전파되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예정론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 중 선택된 자들에게는 들릴 것이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에게는 예정론이 신앙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될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전하는 자는 듣지 못하는 자를 염려해서 예정론은 선교에 장애가 되는 교리라고 생각하기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말씀하시는 것 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전해야 하는 것이다. 칼빈에게 예정론은 처음 복음을 접하는 자에게나 신자에게나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5. 결 론

칼빈의 예정론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사색과 이론화를 피하고 성경 범위 내에서 전개되었다.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어떤 사람은 유기로 예정되었다는 칼빈의 예정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예정론에는 복음의 보편성과 상충되지도 않고, 선교에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정의 시행을 위한 과정으로서 선교를 요청하는 교리임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예정의 시행은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선교사상과 밀접하다. 칼빈의 예정론에 나오는 부르심에는 일반적 부르심과 개별적 부르

57) Augustine, *On the Gift of Perseverance* XIV. 37 ; XV. 38 ; XVI. 40(MPL 45, 1016–1018 ; tr. NPNF V. 540ff.), quoted in *Inst.*, III, 23, 13(OS 4, 408–409).

심으로 구별된다. 말씀의 선포를 통한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며, 성령의 조명을 통한 부르심은 개별적인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일반적 부르심으로 외면적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자신에게로 부르시는데, 복음을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서, 또 더욱 엄격한 정죄의 기회로서 제시하신다. 칼빈은 예정의 특수성과 복음의 보편성을 조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다. 예정의 시행에서 먼저 믿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과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칼빈의 예정론에서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상반된 작정인 것처럼 그 표징들도 서로 정반대로 나타난다. 선택된 자들에게는 성령의 동반으로, 유기된 자들에게는 비동반으로 예정이 시행된다. 유효적인 내적 부르심이 선택의 표징이라면, 내적 부르심의 금지는 유기의 표징이다. 성령의 조명에 의한 신앙이 선택의 결과이며 표징인 반면, 성령의 비동반으로 인한 불신앙은 유기의 결과이며, 표징이다. 칼빈은 이러한 선택과 유기의 표징이 타인을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오용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했다. 따라서 칼빈의 예정론은 선교를 약화시킨다기보다는 예정의 시행을 위해 선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칼빈은 예정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칼빈에게 예정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며, 위로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정론은 성경이 중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예정론도 설교나 선교의 내용으로 타당하며 마땅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선택과 유기도 그러하다. 예정론이 들을 귀가 있는 선택된 자들에게는 들릴 것이고, 유기된 자에게는 들을 귀가 없어 듣지 못할 것이다. 전하는 자는 듣지

못하는 자를 염려해서 예정론은 선교에 장애가 되는 교리라고 생각하기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전해야 하는 것이다.

칼빈의 예정론에는 예정작정 시행과정에서의 부르심, 복음전파로 나타나는 예정의 표징, 전파되어야 할 복음으로서의 예정론이 선교사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교사상이 들어 있는 칼빈의 예정론은 선교를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교를 요청한다.